



울릉도는... 꽃보다 아름다워

제11회 회당문화축제, 3000여 대중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려

울릉도와 진각종의 자랑, '회당문화축제'가 7월 27일 울릉도 도동항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독도아리랑-회당, 울릉, 오늘의 울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1만 여 울릉도민을 비롯해 휴가철 신비의 섬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울릉도 인구는 1994년 3만 5000여 명을 고점으로 현재 1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다. 그 이유는 의료, 교육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상황에서 200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민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뿐만 아니라 울릉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의 구심점

특히 이번 회당문화축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독도사랑을 주제로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 독도아리랑 콘서트, 독도사랑 캠페인, 독도사진전 등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7일 도동항 특설무대에 마련된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는 가수 안치환씨의 공연을 비롯해 울릉도 꿈나무 어린이집 울동공연, 울릉태권도협회의 시범공연, 샌드에니메이션 퍼포먼스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중 안치환씨의 공연은 울릉도를 열광

2001년부터 매년 개최

안치환 공연 등 인기

지역 인사들 대거 참여

주민과 관광객 한마음

에 빠트리기에 충분했다. 해질녘 오징어잡이 배의 등불 배경은 한여름 밤 울릉도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울릉도 저동에서 회당문화축제에 참여한 이근재(47)씨는 "최근 아열대 기후로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아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데 축제로 울릉도를 찾는 이들이 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들도 "장마기간에 관광객이 많지 않았는데 회당축제로 인해 관광객들이 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장마철인 여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회당문화축제를 이어왔는데 올해는 정명한 가운데 열릴 수 있어 모든 주민과 관광객들의 성원과 바람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역 주민의 노고를 치하했다. 혜정 정사는 또 "울릉도민은 독도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 바라며 그 자부심과 행복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이날 울릉태권도협회에 경기력 향상금 300만 원과 해군 118전대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병수 울릉도 부군수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서 회당 축제가 어느덧 11회째를 맞았다. 울릉도 체험 문화는 회당축제를 통해 한걸음 업그레이드됐다. 문화축제 외에도 지역복지에 힘써 나가고 있는 진각종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울릉군민회관에서 진행된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에 군장병, 전의경 500명이 참여해 직접 갖고 닦은 실

력을 뽐냈다. 이들은 뉴트리 팜스와 J&B 소울 등 가수들과 함께 신명나는 무대를 꾸몄다.

이날 공군밴드의 보컬리스트로 참여한 김석주 병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보낸 군생활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매년 있었던 회당문화축제 또한 군생활의 큰 기쁨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서는 30여 자원봉사자들과 울릉

혜정 정사, 자부심 당부

주민들 경제 활성화 기대

진각종, 지속발전 노력

1976년부터 성지와 추진

도청년단 소속 청년들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여객터미널에서 관광객 대상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축제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총의회 의장 혜명 정사, 문사부장 덕정 정사 등 진각종 대표 정사들과 배도순 위덕 대 총장, 총금강회 이상택 회장, 김진영 부군수, 박효신 울릉경찰청장 등 지역 군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진각종 종조 회당 종사 탄생지 울릉도

울릉도는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가 태어난 곳이다. 진각종에서는 탄생지에 진각종 금강원을 지어 이를 기리고 있다.

금강원은 울릉도 사동에 성인봉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회당 대종사의 외가가 위치한 곳이다. 1902년 5월 10일 태어난 회당 대종사의 친가는 울릉도 천부였지만 당시 한 집안에서 같은 해에 두 사람을 출산 할 수 없다는 풍습으로 외가에서 태어났다.

금강원은 회당 대종사 탄생을 기리고 울릉도민들의 귀의처로 자리하기 위해 1976년부터 성지조성 불사를 진행했다.

진각종은 1차 성지조성불사로 종조전과 총지심인당 금강정사를 건립했으며 2차 성지조성불사로 1986년 종조전 앞 종조비와 오룡탑을 세웠다.

진각종은 지속적인 토지매입으로 금강원 확장과 함께 주변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울릉도 전통가옥형태인 너와집으로 촌락을 구성하고 향후 연수시설과 테마공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치환 씨의 노래는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독도 위문 콘서트에서 공연하는 군장병들

노덕현 기자

“지역민 애환 보듬는 지역축제로 발전시킬 것”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사진)는 2011년 회당문화축제를 계기로 회당축제가 불교계를 넘어 지역주민의 자랑으로 자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는 “10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여는 행사로 의미가 깊다”며 “회당문화축제는 회당 대종사의 탄신을 축하하

만 종교를 넘어 모든 주민과 관광객이 한 마음을 뭉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중국의 이어도 군영선 과점 등으로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대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민항기의 영공 통과에 대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에 8월 초 항의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온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더

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혜정 정사는 “도서지역, 특히 독도가 우리 땅이고 울릉도가 중요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지만 정작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혜정 정사는 “외로운 섬에서 경비 활동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애국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행사를 계속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 자원봉사단과 울릉도 청년단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 포교사(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쌍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뜻을 펴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범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